



광주 상무 '유종의 미' 거둔다

프로축구 K-리그...올시즌 광주 연고 마지막 해 '최성국 펄펄' 전남 꺾고 7년만에 광양서 첫 승

'상무 불사조' 마지막 날개를 편다. 2010시즌을 끝으로 빛고을을 떠나는 프로 축구 광주 상무가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2004년 K-리그에 등지를 틀었던 상무에게 올 시즌은 광주에서 보내는 마지막 해. 광주의 자별을 준비하고 있는 상무가 6년간 이어져 온 광양 무승 징크스를 깨고 순위 싸움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10일 상무는 전남과 시즌 첫 '남도 더비'를 치렀다. 전라남도를 연고로 하는 두 팀의 대결, '남도더비'에서 상무는 공-수에서 전남을 압도하며 3-2 짜릿한 승리를 신고했다. 목말랐던 승리의 중심에는 돌아온 최성국이 있었다. 지난 4라운드 부산과의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던 최성국은 다시 찾은 그라운드로서 거침없는 공격본능을 과시했다. 경쾌한 몸놀림을 선보이던 최성국은 전반 14분 프리킥 찬스에서 최원권이 올려준 공을 헤딩슛으로 연결했다. 공은 골키퍼를 맞고 튀어나왔지만 다시 한번 침착하게 골대 왼쪽을 겨냥해 선제골을 기록했다.

전반 37분 전남 김승현이 차출된 프리킥이 골문으로 흘러들어가면서 1-1. 전반전이 종료되기 직전 중앙에서 길게 연결된 볼이 상무 김경우의 발에 걸렸다. 골키퍼를 제친 김경우가 오른쪽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후반 34분 전남 지동원의 골로 승부는 2-2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상무의 질주는 계속됐

다. 골키퍼 김지혁의 선방으로 골문을 틀어막은 상무는 서민국과 조용태가 결승골을 합작하면서 광양 무승 징크스를 깬다.

계막전에서 대구를 2-1로 제압한 뒤 5경기 연속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했던 상무의 승리는 광양에서 올린 첫 승전보이기도 하다. 상무는 광양에서 열린 10번의 '남도더비'에서 2무8패의 성적을 기록했었다. '패배의 땅' 광양에서의 첫 승이자 광주 시민구단 창단 발표가 있는 후 열린 첫 경기에서의 귀중한 승리로 상무 선수단 분위기는 한층 고조됐다.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이강조 감독은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제 역할을 해줘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전북, 울산 등과의 힘든 여정이 기다리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면 승점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불사조의 힘찬 날개짓이 2010 프로축구 그라운드외의 봄바람을 준비하고 있다. /광양=김여울기자 wool@



11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남자프로배구 챔피언결정전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의 경기에서 현대 선수들이 공격에 성공한 뒤 즐거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주초 출신' 피겨 박소연 쇼트 52.28점 개인 최고점

나주초 출신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기대주 박소연(13·강일중)이 제52회 고빙상인추모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쇼트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박소연은 10일 고양 고양시 덕양구 고양 어울림누리 얼음마루 빙상장에서 치러진 대회 여자 중등부 A조 쇼트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32.20점에 예술점수(PCS) 20.08점을 얻어 합계 52.28점을 받았다.

이로써 박소연은 지난 2월 동계체육대회에서 기록한 자신의 쇼트프로그램 개인 최고점(47.94점)을 두달 만에 5점 가까이 끌어올렸다. 특히 지난 2008년 본격적으로 국내 대회에 출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TES 30점대를 넘기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박소연은 11일 프리스케이팅에서 자신의 역대 최고점(133.76점)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생활체육 대축전' 6월로 연기

생활체육 동호인의 화합축제로 2010년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이 '천안함 참사' 여파로 당초 계획보다 두 달 늦춰진 6월11일로 연기됐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오는 23일부터 3일간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생활체육 대축전을 최근 천안함 침몰사고로 범국민적인 애도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두 달 정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축전은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게 된다.

한편 전남도생활체육회(회장 이탁우·이하 도생체)는 오는 17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한다. 도생체 관계자는 "서울시와의 우호 교류는 주체 측이 이벤트 규모를 축소하기로 함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되며, 도생체도 참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김기호 기자 swseo@kwangju.co.kr

김지현 쇼우소녀역도 2관왕

김지현(17·제주 남영고)이 제12회 아시아유소년역도선수권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김지현은 11일(한국시각)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벌어진 대회 남자 69kg급에서 인상 118kg, 용상 154kg를 들어 올려 각각 3위와 1위를 차지했다.

김지현은 합계에도 272kg을 기록해 1위에 오르면서 금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인상 1위는 121kg에 성공한 쉐인사오(중국)가 차지했다. /연합뉴스

'블로킹 14개' 현대, 삼성에 설욕

V리그 챔피언 1승1패 승부 원점

현대캐피탈이 철벽 블로킹을 앞세워 삼성화재에 반격을 가하며 프로배구 챔피언결정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현대캐피탈은 11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 계속된 프로배구 NH농협 2009-2010 V리그 챔피언결정전(7전4선승제) 2차전에서 장신을 이용한 블로킹(14점)과 헤르만데스(15점)의 활약에 힘입어 삼성화재를 3-0(25-20 25-23 25-19)으로 완파했다. /연합뉴스

두 팀은 13일 오후 7시 장소를 천안 유관순체육관으로 옮겨 3차전을 벌인다.

장신군단 현대캐피탈은 '더블타워'인 센터 이선규(199cm)와 하경민(201cm)이 블로킹으로만 각각 5점과 4점을 올리는 등 팀 블로킹에서 14-5로 앞서면서 승부를 갈랐다.

삼성화재는 전날 5세트 동안 프로배구 한 경기 개인 최다득점 타이 기록인 50점을 올린 역전승의 주인공 가빈이 27점을 올렸으나 범실을 11개나 쏟아냈다. /연합뉴스

박지성, 맨유 '3월의 선수' 팬 투표 2위

22% 득표...루니 39% 얻어 3개월 연속 '이달의 선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지난달 최우수선수(MVP)를 뽑는 구단 팬 투표에서 2위를 차지했다.

맨유는 지난 9일 오후(한국시각)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MVP 투표 결과 루니가

39%의 득표로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이달의 선수'로 뽑혔던 박지성이 22%를 뒤를 이었고, 공격수 디미타르 베르바토프(17%)가 3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박지성은 지난달 11일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AC밀란과 16강 1차전 경기

를 시작으로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2골1도움)를 올리는 등 맹활약했지만, 4경기에서 6골을 터트린 루니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루니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연속 '이달의 선수'로 뽑혔는데, 이는 구단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맨유는 밝혔다. /연합뉴스

꼬이는 쇼트트랙...이번엔 선발전 연기 '시끌'

"특정팀 죽이기·파벌싸움" 반발

빙상연맹의 결정에 '음모'가 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3관왕 안현수(성남시청)는 미니홈피를 통해 "선발전이 9월달로 미뤄진다는 건 1년 동안 4월 선발전을 연기하자 일부 선수와 코치가 '특정팀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나서서 등 사태가 꼬이고 있다."

빙상연맹은 지난 9일 박성인 회장 명의로 "현재 상황에서는 원만한 대회 운영과 공정한 선수 선발이 어렵다고 판단, 대표선발전을 9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선수들과 코치들은 이번

첼시 애스턴 빌라에 3-0 완승

FA컵 결승행...더블우승 희망

잉글랜드 프로축구 '강호' 첼시가 프리미어리그와 FA컵에서 동시에 우승하는 '더블우승' 기대를 부풀렸다.

첼시는 11일(한국시각) 영국 런던의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FA컵 준결승에서 후반에만 디디에 드로그바와 플로랑 말루다, 프랭크 램퍼드가 릴레이 골을 터트려 애스턴 빌라를 3-0으로 대파했다.

FA컵 결승에 오른 첼시는 토트넘 홋스퍼-포츠머스 승자와 우승을 다툰다.

특히 첼시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맨유를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어 FA컵과 프리미어리그를 모두 제패하는 더블 우승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아리울공인중개사

☎ (063)583-7788
☎ 010-8004-5900
(전북 서해안, 새만금 전문임사)

▶ **펜션건물(투자,직영,임대)**

- 대지 300평 건물 140평 : 매가 7억
- 직영시 월 수입
- 최저 1300만원 이상 발생
- 용자 2억 이상 가능

▶ **투자용 펜션 오피스**

- 150~300평
- 평당 50~100만원
- 해수욕장 주변으로 배산임수
- 물 갖춘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으로 투자 최적함

▶ **투자용 전원주택 오피스**

- 150~300평
- 평당 25만~35만원
- 새만금 밀집지역을 탈피하고 한가로운 전원 주택지를 찾는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새만금 관광시대 임박으로 펜션투자시 광주시역 전원주택의 절반 금액으로 수입은 3배이상 급리는 년 25%이상 보장되는 물건만 취급

◎ 2010년 4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개통으로 지금이 투자적기!

금산공인중개사

T.681-5888 H.011-8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상무역,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4면 광로변)
- 대지면적: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 종합병원/상가/오피스/유흥가능

주유소부지 급매

- 위치: 전남 김진군 칠량면 칠량농공단지 앞
- 면적: 대지 1400㎡, 도로면적 910㎡
- 특징:
 - 주유건축시설 허가 특
 - 도로정용 허가 특
 - 마당에서 경주상형선 첫주유소부지
 - 2010년 9월 완공 칠량농공단지앞 유일주유소
- 매매가: 1억 7천만원

창고부지 (서광주역 2순환도로변)

- 창고부지 약 2600㎡(창고 490㎡) 대지 약 950㎡
- 매매가: 22억(조정가능)
- 대지,창고 분할 매매가능
- 물류,창고부지로 최적지

무인빌 매각공고

◆ 대 상

- 위치 광주 북구 유동 105-1외 (LG서비스 센터 뒷)
- 매매가는 상담 후 결정

◆ 특징점

- 최근에 신축한 시설이며 객실은 20개임
- 도로에 인접해 있어 고객이용이 편리함
- 인테리어는 최고의 품질을 자부함
- 매출 수익보장, 유동인구 많음
- 홈페이지 개설운영, 최첨단 드라이브인

연락처 : 010-5614-1126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금융지역,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대출

◆ 마니또론 신용대출

-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프리랜서등
- 추가대출, 대한대출, 채무통합, 신규대출 (7.5% 고정금리로 4년분할상환)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 아파트론 - 무담보 아파트대출

- 근저당설정없이 추가대출가능
- 소득증빙 無, 무직자, 주부도 가능

소액필요한데 근저당설정하기 귀찮으시죠? 하나캐피탈 아파트론 이용하세요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과 한가족입니다!

www.hanacapital-manitoloan.co.kr

하나금융그룹 공식상담사 안광호 팀장

☎ 010-4041-1121

위 상담사는 여신금융협회에 정식등록된 상담사입니다